

5/18 지난 수업 리뷰

강의 주제: 지난 시간에 나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 핵심 개념 강의

○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속의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함.(실제 작가 아님. 소설 속의 작가임.)

소설 속의 작가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말, 행동, 생각, 속마음 등 모든 것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작가는 이 소설 속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 (전지全知: 모든 것을 다 안다.)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므로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음.

요즘 따라 점순이가 남주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주는 어리숙해 점순이가 따라다니는 것도 몰랐다.

점순이는 속이 탔지만 남주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감자를 구워 가져갔다.

"야, 여기 감자 좀 먹어봐 봄 감자가 맛있단다."

"..."

"내 말 듣고 있니?"

"나 일하느라 바빠. 도와줄 거 아니면 좀 비켜."

점순이는 힘들게 구운 감자의 성의를 거절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남주는 점순이를 힐끗 보더니 깜짝 놀랐다.

점순이가 울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던가.

질문1. 서술자를 소설 속의 '전지적 작가'로 바꿔서 소설을 써봅시다. (열 줄 이상 적어보세요.)

친구들이 서술자를 바꿔서 창작한 소설 (1)

점순이라는 아이와 남주라는 아이는 아랫집 윗집에 사는 이웃이자, 그들의 부모는 아주 중요한 관계인 지주와 소작농 관계이다. 점순이는 여러 해 동안 남주라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순이는 남주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주는 점순이네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이 중요한 관계인 지주와 소작농이라서 혹시 점순이와 친해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네 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감자를 거절해 버렸다. 그렇게 남주가 거절하자 점순이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리고 점순이는 남주의 관심을 끌려고 남주가 가장 아끼는 것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 수탉을 몰래 닭장에서 빼와서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멍청한 남주는 그걸 또 이기겠다면서 닭에게 온갖 방법을 다 쓴다. 그걸 본 점순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주 저놈은 눈치도 없네 그래도 괜찮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게 더 남주에게 빠진 점순이는 남주의 닭을 심하게 괴롭힌다.

친구들이 서술자를 바꿔서 창작한 소설 (2)

요즘 점순이는 남주를 볼 때마다 다른 눈빛으로 본다. 전에는 아는 남자 애 옆집 남자 애 수준인데 요즘 눈빛이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면 진짜 연인들의 눈빛이다.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점순이는 요즘 소설과 같은 책을 읽는 거 같다. 왜냐하면 요즘 감성이 충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있으면 점순이가 남주에게 고백을 할 것만 같아 보인다. 점순이는 문득 생각이 났다. '선물을 주면서 고백을 하면 남주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점순이는 고민을 한다. 먹을 걸 줄지 물건을 줄지 점순이는 떠올랐다! '그래 역시 사람은 먹는 거를 줘야지 행복해!'라는 생각에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보더니 감자 세 알이 보였다. 그래서 점순이는 감자 세 알을 준비했고 감자는 구워야 더 맛있다는 걸 아는 점순이는 감자를 정성껏 구워서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하러 간다. 점순이의 고백 날 남주가 울타리를 쌓고 점순이랑 대화 중 점순이가 "느그 집엔 이런 거 없제?" 이러며 남주에게 주었다. 하지만 남주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뭔가 이상하다 남주가 감자를 다시 점순이에게 준다. 점순이는 놀랐다 남주가 왜 안 받았는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점순이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였던 것 같다.

친구들이 서술자를 바꿔서 창작한 소설 (3)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순이에게 덕수가 연애상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덕수가 감자를 받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점순이는 서둘러 감자를 구웠다. 덕수 일하느라 힘들겠지? 얼른 구워져라. 점순이는 덕수에게 줄 감자를 들고서 덕수에게로 갔다 줄때 어떻게 말하지? 점순이는 가는 도중에도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그렇지만 결국 점순이가 건넨 말은 “너네는 이런 거 없지?”였다. 그러자 덕수가 기분이 안 좋은지 감자를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지?’ 점순이는 덕수가 자신의 감자를 받지 않아서 빠져버렸다 자신의 감자를 안 받은 덕수가 (내가) 점순이 자신을 좋아할 때까지 관심을 받아보기로 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 그게 있지?’ 하며 생각하고는 수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고서는 거의 매일 수탉으로 덕수네 집 닭과 싸움을 붙였다.

친구들이 서술자를 바꿔서 창작한 소설 (4)

요즘 준식은 점순이를 만나기 두렵다 처음 감자를 점순이가 권했을 때부터 평소 점순이와 다르다는걸 느꼈다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라며 감자를 주어 자존심이 상해 안 먹긴 했지만 그런 말을 안 하고 줬으면 먹었을 것이다. 사실은 감자를 엄청 좋아한다. 거절을 하니 점순이가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화가 났다. ~~나는~~ 준식은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점순이가 ~~내~~ 준식의 닭을 때리고 있을 때 사실은 무서웠다 닭도 저렇게 때리는데 사람이라고 못 때릴 거 없지 않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점순이가 무서웠다 하지만 ~~나도~~ 준식이기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준식이기도 우리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점순네 닭과 싸움을 붙였지만 점순네 닭은 싹닭이라 그런지 어림도 없었다. 그때는 솔직히 준식이기도 ~~우라~~ 자기네 닭을 원망했다 점순이가 나중에 ~~우라~~ 자신의 집 닭을 죽이는 걸 봤을 땐 진짜 화가 엄청 났지만 점순네 부모님과 ~~우라~~ 자신의 부모님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참았다. 원래는 나중에 점순이와 동백꽃 앞에서 만날 때 ~~나~~ 준식은 결판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해온 게 너무 서러워서 준식은 눈물이 나와 버렸다. 그러자 점순이가 다신 안 그럴 거냐고 물었고 ~~나~~ 준식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알겠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점순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나~~준식이와 함께 동백꽃으로 파묻혔다 그러자 갑자기 심장이 엄청 뛰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점순이가 지금까지 왜 ~~나~~ 자신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알 거 같았다.

친구들이 서술자를 바꿔서 창작한 소설 (5)

점순이가 요즈음 이상하다 갑자기 안하던 말도하고 많이 착해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점순이가 ~~나~~ 준식에게 구운 감자 3개를 들고서 ~~나에게~~ 왔다. 구운 감자에는 흙과 먼지가 많아서 껍질을 일일이 따기 싫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알겠다." 하고 갈 녀석이 5분이 지나서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다. 빨리 가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나의~~ 준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소에 완전히 장사처럼 힘도 세고 그렇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도 않고 ~~나~~ 준식에게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녀석이 눈에서 물이 뚝뚝하고 떨어지는 것이다. 혹시 ~~내~~ 자신의 감자를 안 받아서 그런가? 생각해서 다시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점순이는 ~~나~~ 준식에게 욕을 하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한 ~~내~~ 준식이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단의 중점이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질문2. 남녀 주인공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전지적 작가가 들려주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1) 모든 등장인물의 세밀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둘의 마음을 동시에 이야기하며 서술하니 재밌었다.

(2) 두 주인공 모두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두 주인공 각자의 감정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짝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어떤지 알 수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야기만을 알 수 있었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상황과 생각,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해설 같은 느낌이 있어 좋다.

모든 자세한 내용까지 알게 되어 좋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줘서 웬만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다.

(+창작의 매력)

내가 직접 소설 속 작가의 시점에서 상상한 대로 이야기를 써보니 있는 그대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매력인 것 같다.

내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쓴 이 소설을 읽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기분이 좋다.

재미있다.

신기하다

< 오늘 수업을 마치며 > “오늘 수업에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응답 4개

없다.

감사합니다

없음